

# 한국 전근대 및 근대 치의학의 역사

신재의  
대한치과의사학회

ORCID ID

Jae-eui Shin,  <https://orcid.org/0000-0001-5202-4694>

## ABSTRACT

### History of Pre-Modern and Modern Dentistry in Koreans

Jae-eui Shin

The Korea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Pre-modern dentistry in Korea developed as part of traditional medicine during the Gojoseon, Three Kingdoms Period, Goryeo, and Joseon Dynasty, and modern dentistry developed with the introduction of dentistry through the West and the introduction of dentistry through Japan. Modern dentistry has developed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activities of the Dental Association.

Key words : Pre-modern dentistry, Modern dentistry, dental Association

---

Corresponding Author  
Jae-eui Shin DDS, MS, PhD  
GYEONGGI PROVINCE, Republic of Korea.  
Tel : +82-2-2228-3149 / Fax : +82-2-313-7575 / E-mail : allens@naver.com

---

## 1부 전근대 치의학

전근대 치의학은 서양의 근대문물 유입 이전의 치의학이다. 이는 의학과 치의학 분화 이전 시기로, 전통의 학에서 취급하던 분야였다. 전근대 치의학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대별될 수 있다. 선사시대 치의학 분야는 고고학적 유물에서 찾아볼 수 있고, 역사시대 치의학은 역사서와 의서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 가) 고조선

제정일치시대의 고조선에서는 “8조 금법(八條禁法)”에서 의학의 시조로 단군왕검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이가 아플 때 어떠한 치료법을 이용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대의 타민족과 마찬가지로 샤머니즘적인 술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나) 삼국시대 치의학과 유불선 3교의 영향

역사서에서 치아에 관한 최초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新羅) 유리이사금(儒理尼師今) 본기(本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리이사금은 남해의 태자고, 어머니는 운제부인이고, 비는 일지갈문왕의 딸이다. 처음에 남해왕 이 돌아가자, 태자 유리가 마땅히 즉위하여야 할 것인데, 태보 탈해가 평소에 덕망이 있음으로써 유리는 임금자리를 그에게 밀어주려고 사양하니, 탈해는 말하기를 「신기대 보는 용렬한 사람이 감당할 바가 아닙니다. 듣건데 성스럽고 지혜로운 이는 이가 많다 하오니 시험합시다.」 하고, 떡을 물어 이를 시험한즉, 유리의 잇금이 많은지라, 군신들은 유리를 받들어 임금으로 모시고 이사금이라 이름하였다. 옛날 전하는 말은 이와 같으나 김대문(金大問)이 이르기를 이사금은 방언으로서 치리를 말한다. 옛

날 남해가 돌아가시려 할 때 아들 유리와 사위 탈해에게 이르기를 「내가 죽은 뒤에는 너희들 박·석·두·성의 연장자로서 임금의 자리를 이으라」 하였는데 그 뒤에 김성이 또 일어나서 삼성이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서로 임금 자리를 이었던 까닭으로 이사금이라고 칭하였다고 한다.

치아와 관련된 내용은 성스럽고 지혜로운 이는 이가 많다 하니, 떡을 물어 시험한즉, 유리의 잇금이 많은지라, 군신들은 유리를 받들어 임금으로 모시고 이사금이라 이름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김대문(신라 성덕왕 때의 귀족 학자)은 이사금이 방언으로 치리를 말한다 는 것이다. 이와 같은 치아에 관한 기록은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4세기 후반 한민족 고유의 치과의술은 불교 전래 시 불전을 통해 고대 인도 치과의술을 동화시켜 발달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거의 이 시기에 율령이 제정되었고, 의술교육기관도 설치되었으며, 의사제도(醫事制度)도 제정되었다.

6세기 중반 한의서(漢醫書)의 전래 및 7세기 중반 의도교의 전래로 그 도장(道藏)을 통해 고대 중국 치과의학을 계속 흡수 동화시켜 더욱 발달하게 되었다. 고구려에는 이미 구료제도(救療制度)가 있었고, 백제에서는 의약 분업화가 있었으며, 통일신라는 수, 당의 치과의학을 적극 수입 동화시켜 나갔다.

### 다) 고려의 치의학과 향약의 발달

고려의 치과의학은 송과 원의 의사제도와 치과의학을 도입하였고, 향약 국산화 노력으로 한국 최고(最古)의 의서인 『향약구급방(鄉藥救急方)』을 간행하였다. 이로써 질병이 치료되었고,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구가 증가되었다. 이는 고려 대장도감에서 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는 조선 태조 17년(1417)에 중단된 것이 전하고 있다.

『향약구급방』에서 치의학과 관련된 것은 중설(重舌)(상권17항)·치감(齒蝟)(상권18항)·구순병(口脣病)(중권 25항)·부인잡방(婦人雜方)(하권 1항)·소아잡방(小兒雜方)(하권 2항)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치과질환에 사용된 약처방은 병증에 따라 30여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처방에 사용된 약재는 속 명(俗名)·약미(藥味)·약독(藥毒)·채취법(採取法)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치아우식의 충전법이 최초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구멍에 송지(松脂)를 충전하는 것이었다.

또한 고려시대의 의사제도(醫事制度)는 이미 확립되었다.

고려 치의학 비의서에 의한 접근

중세(中世) 고려인들의 치의학적 지식은 단편적이긴 하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는 치통과 인생사를 그린 시가 있다.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으며 먹을 때에는 반드시 이(치아)로 씹는데

이가 몹시 아파 먹지를 못하니 하늘이 나를 죽이려는가 보네

강하면 꺾이는 것은 정한 이치이지만 늙고 이 빠지면 더욱 부끄럽네

아직도 몇 개가 남아 있지만 뿌리가 흔들려서 붙을 데 없더니

이제 다시 썬시고 아파서 두통까지 일어나네

찬물도 마실 수 없고 뜨거운 물도 입에 댈 수 없네

죽도 식기를 기다려 겨우 훑아 먹노라

하물며 고기를 씹을 수 있으랴

고기가 있어야 한갓 도마에 있을 뿐이네

이 모두가 늙은 때문이니 죽어야 비로소 끝나리

## 라) 조선왕조의 치의학

조선시대 전기의 치의학은 세종 때의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과 『동의보감(東醫寶鑑)』으로 대표된다. 『향약집성방』은 조선 세종 13년(1431)부터 편찬하기 시작하여 2년 후인 1433년에 간행되었다. 이는 집현전(集賢殿) 직제학(直提學) 유효통(兪孝通), 전의감정(典醫監正) 노중례(盧重禮), 부정(副正) 박윤덕(朴允德)이 85권 30책으로 완성한 것이다.

『동의보감(東醫寶鑑)』은 선조 29년(1596) 태의(太醫) 허준(許浚)·양예수(楊禮壽)·김응석(金應錫)·이명원(李命源)·정예남(鄭禮男)·유의(儒醫)·정작(鄭碣) 등이 편찬을 시작하여 광해군(光海君) 2년(1610) 허준이 완성하고, 광해군 5년(1613)에 25권 25책으로 훈련도감(訓練都監)에서 활자본으로 간행된 것이다. 『동의보감』과 『향약집성방』들은 기존의 전통 의서에 중국 의서를 참조하여 편찬한 것으로 아비케나(Avicenna)의 『의학대전』보다 뛰어난 종합 의서로 평가받고 있다. 2009년 7월 31일에는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향약집성방』에는 음양오행설에 의하여 해부, 생리, 병리를 설명하고, 구설·입술의 병증과 이에 대한 치료법을 열거하고 있다. 대표적 예로 치통을 일으키는 병증을 풍(風)·열(熱)·냉(冷)·치충(齒蟲) 네 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치료법을 기술하고 있다. 병증을 20여 가지로 분류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조선 초기는 고려 의서처럼 중국 의서의 병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향약집성방』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구설문과 아치문으로 나는 것이 그러한 사례이다. 먼저 구설문에서 구설에 대해서는 생리를 기록하고 구강의 해부학적 설명을 기술하였다. 아치문에서 치아에 관해서는 치아의 생리와 치아의 명칭을 설명하면서 치아 질환의 병리도 기재하고 있다. 병증의 분류는 『향약집성방』과 유사하

나, 세분하여 새로이 기술한 내용도 보인다. 『동의보감』에서는 치통을 원인에 따라 풍열통(風熱痛), 풍냉통(風冷痛), 열통(熱痛), 한통(寒痛), 독담통(毒痰痛), 어혈통(瘀血痛), 충식통(蟲蝕痛) 등 7종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병증과 치료법을 기록하고 있다.

『동의보감』에서 치과질환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외형편(外形篇) 권지이(卷之二)”의 구설문(口舌門)과 아치문(牙齒門)이 치과질환 및 처치법을 다룬 부분이다. 구설문은 주로 구강내 연조직 질환을 다루었고, 아치문은 치아와 치주조직의 질환을 다루었다. 풍열통은 외풍이 내열과 서로 부딪쳐 잇몸이 붓고 아프며 고름과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이다. 열통이란 것은 창자와 위장이 적열(積熱, 積熱), 입속 허물이 벗겨지고 가슴이 답답하며 변비증이 생기다가 몸에 부스럼이 나는 병)하고 잇몸이 붓고 벗어지며 입냄새가 심하다. 한통이란 것은 객한(客寒, 찬 바람을 쏘여서 나는 오한)이 뇌를 침범하면 머리와 이가 연(連)해서 아프다. 독담통은 열(熱)하면 담(痰)이 나고 독기가 상공(上攻)하여 경락(經絡)에 유주(流注)하면 가장 발통(發痛)이 심하며 외증(外症)은 담(痰)이 성(盛)하고 해타(咳唾)한다. 충식통은 무릇 사람이 마시고 먹은 후 이를 깨끗이 하지 않으면 썩은 기(氣)가 오래 남아 날이 오래됨에 따라서 치은에 구멍이 생기고 그 사이를 먹어 한 개를 다 먹으면 그 나머지를 먹는데, 감닉과 같은 증(症)이 다 그 종류로서 반드시 벌레를 죽여야 아픔이 멎는다. 어혈통은 풍열이 은간(齦間)을 엮공하여 피가 명으로 땀혀 사라지지 않고 침으로 찌르듯이 아프다. 이상 치통을 7종으로 분류하였는데 풍열통은 치조농양, 풍냉통은 치주질환, 열통은 acute necrotizing ulcerative gingivitis, 한통 및 독담통은 감기몸살 등으로 인한 관련통으로서의 치통, 충식통은 치아우식 등이 치수를 침범하여 일어나는 치통, 어혈통은 치조농양이 화농되기 전 단계를 각각 말하는 듯하다. 기타 치아가 솟는다(아치점장 牙齒漸長)든가, 외상으로 인한 치아탈구(투치鬪齒),

gingival polyp(치옹齒壅), brusism(계치齧齒)에 대한 언급이 있다.

또 동의보감에 ‘아치가 황흑(黃黑)하여 맑고 정결하지 못한데 석고세말(석고세末), 사와세말(砂瓦細末, 사기의 고운 가루를 물과 같이 흘려서 만든 보드라운 가루) 각 한냥(一兩), 영릉향(零陵香) 백지(白芷), 청염(靑鹽), 승마(升麻) 각 2전반(錢半), 세신(細辛) 1전, 사향(麝香) 반전(半錢)을 합쳐서 고운 가루가 되도록 하여 매일 이른 아침에 이것을 조금 짊어서 이를 문지르고 따뜻한 물로 함수(含漱, 양치질)하여 뱉으면 되는데, 일명 백아약(白牙藥)이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백아약은 오늘날 연마제가 많이 들은 치약에 해당하니, 연마제로 석고(오늘날의 석고와는 약간 다름)와 사기그릇 고운 가루 및 청염(靑鹽)을 넣고, 방향제로 사향 등을 넣고, 새살을 나게 하는 백지, 진통효과가 있는 세신, 백지, 구창(口瘡)에 치료효과가 있는 승마 등을 넣었다. 그리고 찰아지통방(擦牙止痛方)에 ‘황반(黃礬, 유허을 함유한 광물) 봉과(蜂窠, 벌집) 1개에 천초(川椒)를 넣어 과(窠)를 가득차게 하고, 다시 백염(白鹽) 1전을 같이 연말(研末)하여 먼저 다청(茶淸, 맑은 찻물)으로 양치한 뒤에 문지르고, 구멍이 있으면 약가루를 구멍에 메우면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와동에 충전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치아에 붙은 황흑색 물질이 난골(爛骨)과 같은 것을 치상(齒狀, 오늘날의 치석)이라고 하는데, 치아를 다스리는 사람은 먼저 이것을 감도(揩刀, 오늘날의 스케일러)로서 긁어버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가 잇몸에 붙지 않는다.’라고 하여 오늘날의 스케일링에 해당한다.

이들 전통의서의 공통된 특징은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통증을 완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먹다(복服), 상처에 바르다(도塗), 붙이다(점貼·부付), 놓다(안安), 넣다(점點), 분말을 뿌린다(섭參), 붙인다(전傳), 문질러 훔친다(찰擦)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구설의 병증에는 머금었다가 내뱉는

함습) 방법과 양치질을 하는(수嗽) 방법이 쓰였다.

구설의 치료법으로는 첩족법(貼足法), 첩시법(貼頤法), 도족법(塗足法), 도제법(塗臍法), 탁족법(濯足法), 화독법(化毒法) 등으로 현대의학에서는 보기 드문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약재를 발이나 배꼽, 숨구멍 등에 붙이거나 바르는 것이다. 이는 음양오행설에 따라 일정한 부위에 약재를 사용하여 병소에 자극을 전달하려는 의도였으나 그 효과는 알기 어렵다.

구강 연조직 질환의 외과적 치료법은 칼로 찢어 피를 뽑는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 외과적 치료에는 마취와 지혈법이 따르기 마련인데, 마취는 주로 국소마취법이 이용되었고 전신마취는 원시적이었던 것 같다. 악관절 탈구와 순설성형을 하였다는 기록도 보인다. 이밖에 흑비법(搗鼻法), 색이법(塞耳法), 취아충법(取牙蟲法), 훈아법(熏牙法), 충전법(充填法), 발치법(拔齒法), 치아재식법(齒牙再植法), 양치법(養齒法), 개치법(揩齒法), 고치법(叩齒法) 등이 기록되어 있다. 흑비법과 색이법은 코나 귀에 해독이나 진통제를 투여하는 방법이고, 취아충법과 훈아법은 치충을 잡아내는 방법이다.

오늘날에도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충전법이다. 충전법은 건지용(乾地龍)·사향(麝香)·낭당자(菴藎子)를 와동에 충전하는 법으로 『향약집성방』에 기재되어 있다. 『향약구급방』과 『향약집성방』에 기록된 충전법이 『동의보감』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당시 사용되었던 재료와 시술이 불완전하여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도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효과가 적어 사용이 중단된 충전법은 더 이상 보존과 보철 치료의 발전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다.

동의보감에서는 ‘살충환(殺蟲丸)은 호비상(好砒霜)에 황단(黃丹)을 넣고 황납(黃蠟), 꿀벌집을 끓여 짜낸 기름, 밀초)을 녹여 덩어리를 만들어 황두대(黃豆大, 노란 콩 크기)로 환을 만들어 숨으로 싸고, 우측 치아통증에는 우측 귀에, 좌측 치아통증에는 좌측 귀에 깊이 넣어 하루밤 지나면 벌레가 다 죽고 영원히 아프지 않다.’고

하였는데, 비상(砒霜)은 arsenic이니 비상이 주약재인 제재로, 오늘날 아비산으로 치수를 mummification 시키는 것과 같으나, 치통에 귀에 약재를 넣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또 탁목조(啄木鳥, 딱따구리)의 혀를 우치(齧齒) 치료제로 쓴다는 것은 딱따구리가 나무에 구멍을 뚫는다는 데서 심정적으로 치아의 구멍과 유감(類感)한 듯 하다.

치아를 빼는 방법도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약재를 가루로 만들어 아픈 치아에 조금씩 문지르거나, 아픈 치아의 잇몸에 피를 내고 첩약하면 치아가 저절로 빠진다는 것이다. 발치에서의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은 결과로 외과적 발전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발치로 인한 출혈의 처방으로 『향약집성방』에서는 잇몸에 바르는 여러 가지 약재를 추천하고 있다.

치아를 보존하려는 노력도 하였다. 치아재식법은 단지 치아를 보존하려는 노력이었으며 오늘날의 치아식과는 다르다. 양치법으로 구기차나 농차로 양치를 한다는 것은 현대의학이 증명한 차에 불소가 함유되어 있어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과 같다. 고치법은 유익들의 양생서에 많은 방법이 나타나 있다. 치상(齒狀)이나 계란 속껍질에 붙은 막(치태) 같은 것이 붙어 있으면 역시 감도(疳刀)로 제거하였다. 이것은 오늘의 치석제거(스케일링 scaling)와 유사한 치아 주위조직 질환의 치료법으로 임상에서 얻은 과학적인 의료 행위일 것이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왕이 치통으로 고생하시는 기록이 몇 가지 있다. 치과전문 의녀가 있다는 기록이다. 이들은 가씨(加氏), 장덕(張德), 귀금(貴金), 옥매(玉梅), 분이(粉伊)이다. 세조 2년(1456) 1월 24일 제주안무사(濟州安撫使)에게 “여의중(女醫中)에서 난산, 근병, 치통을 잘 고치는 사람을 2, 3명 골라 올려 보내라”한 기록이 있다.

치과의녀(齒科醫女)의 기록은 「성종실록(成宗實錄)」

에 나온다. 성종 11년(1480) 7월 8일 충치 치 료의 방법과 그 내용까지 기재되었다.

“왕의 치통이 몇 년이 되었는데 널리 의약을 써 보았으나 효과가 없다. 관반(館伴)을 시켜 사신(使臣)에게 물어 보면 그는 성심껏 약을 구할 것이 아니냐.”하고 물으니, 도승지가 말하기를 “전하의 치통을 타국인에게 알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등 왕이 치통으로 몹시 고생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 후 성종 19년(1488)에는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치아를 고치는 의녀 장덕이 이미 죽고 지금은 그 업을 전수하는 사람이 없다.”는 보고가 기록되어 있는데 성종 23년(1492) 6월 14일 기록에 “제주 의녀 장덕은 의충을 잘 잡아냈다. 병창(病瘡)이 있는 곳은 모두 잘 고쳤다. 죽게 되어 그 술법을 종인 귀금(貴今)에게 전하여 국가에서는 의녀를 만들어 널리 그 술법을 전하려 하여 두 의녀를 따르게 하였다. 귀금은 그것을 비밀로 하고 가르치지 않아 귀금을 문책하니 귀금은 ‘나는 7세부터 이 공부를 하여 16세에 배웠다. 지금 내가 마음을 쓰지 않음이 아니라 이것을 가르쳐도 그들은 배우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다.”

같은 이야기가 「용재총화(慵齋叢話)」 성현(成俔 1439 - 1504)과 「청파극담(靑坡劇談)」 이육(李陸 1438 - 1498)에도 있다.

이 같은 전통의서 이외에 조선 후기 사대부의 치의학 지식을 살펴볼 수 있는 글로써 「여용국전(女容國傳)」이 있다. 이는 영·정조 때 실학자 순암(順菴) 안정복(安鼎福)이 한역한 것으로, 치의학의 활용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女容國이라는 제국이 있었다. (중략) 그리고 15국의 신하들을 각각 소개하면 태부의 벼슬을 하고 있는 朱鎰이 있고, 소부의 벼슬을 하고 있는 白光이 있으며, 皓

齒장군에 楊樹가 있고, 수군도독에 關淨이 있고, (중략) 白石山 앞뒤에는 黃染의 군졸들이 谷口山으로부터 赤盾關에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중략) 이것을 보고 있던 호치장군 양수가 말하기를 소장은 황염을 토벌하여 백석산성을 평정하겠습니다. 황제는 그 자리에서 허락했다. 명령을 받은 양수는 흰옷을 입고 梨花槍을 들고 일지병을 앞세웠는데 一枝兵의 생김새가 허리는 길고 아래는 뾰족하며 위는 평퍼짐하여 기품이 매우 당당하고 늠름했다. 성공에 자신이 있는 일지병인 것이다. 일지병은 먼저 곡구산으로 들어가서 적순관의 좁은 길을 막고 소탕을 시작하니, 성을 유지하지 못한 황염은 패배했다. 황제는 다시 수군 일대를 명하여 양수를 돕게 하였다. 황염은 그 족속을 인솔하고 물 속으로 들어가 모두 자살해 버렸다. 이리하여 백석산도 평정되었다.

이는 여자의 화장도구를 의인화하여 얼굴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나라 잘 다스리는데 비유한 해학적인 글이다. 여기서 황염은 치석을 가리키는 것으로 양수(버드나무 칫솔)로 황염(치석)을 제거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 당시의 실학자들은 치석을 제거함으로써 치석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치주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지식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조선의 의료제도는 왕과 왕실의 건강을 위한 내의원, 의학 행정과 의원 교육을 담당한 전의감, 일반 백성을 위한 의원 교육 및 약제를 관리하는 혜민서, 그리고 도성의 병자를 책임지는 활인서가 있었다. 그때까지의 전염병에 대한 국가의 인식은 전염병을 “역병”이라 하여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하늘의 재앙이라고 파악하였다. 또한 국가의 대책으로는 역병이 발생한 후에 환자나 시체를 성문 밖으로 옮기거나 이로 인해 고통 받은 백성을 보살피거나 종교적인 차원에서 민심 수습용 만제가 행하여지는 것이었다.

## 2부 근대 치의학의 도입

### 가. 서양인을 통한 치의학의 도입

개항 직후 조선인에게 서양치의학은 놀람의 대상이었다. 조선인에게 입에서 의치를 빼어내는 이방인은 신체의 일부인 치아를 분리하는 장면으로 보였다. 그것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장면으로 조선인에게는 “조용한 은둔의 나라”에 출몰한 이양선(異樣船)과 비교될 만큼 큰 놀람이었다. “선장이 점심을 마치고 입안을 씻고자 자신의 의치를 빼어내자, 이에 구경꾼들은 기겁을 했다”는 것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알렌은 선교 목적으로 조선에 처음 들어 온 의사인 선교사였다. 알렌은 왕실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자상(刺傷)을 입은 민영익(閔泳翊)을 치료하였기 때문이었다. 알렌은 1885년 4월 9일에 조선 최초의 서양식 병원 광혜원(廣惠院)에서 진료를 시작하였다. 조선정부가 병원설비를 갖추어 주었고, 알렌은 서양의술로서 환자들을 치료하였다. 그는 또한 청년들에게 서양의학 및 공중위생학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이 병원은 1885년 4월 23일 조선 정부로부터 제증원(濟衆院)이라고 이름이 고치게 되었다. 제증원의 창설로 1882년 혜민서와 활인서가 혁파된 대민 의료기관의 기능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 제증원은 1894년 12월 16일에 내무부 위생국으로 관리가 이전되며 그 관제가 삭제되었다.

알렌은 이 제증원에서 조선인의 치아를 관찰하며, 치아를 拔去했다. 알렌은 자신의 활동에 관련된 것을 기록으로 남겨 놓았다. 『조선체류기(朝鮮滯留紀 Things Korean)』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는 조선인들의 생활상과 관련되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 「의학노트」편 가운데 ‘치아’에 관한 아래와 같은 글이 있는데, 이는 서양인이 쓴 최초의 조선인에 대한 치과 기록이다.

“쌀밥 식사는 치아의 성장에 좋은 것 같다. 한국 사람은 거의 누구나 훌륭하고 진주와 같이 흰 이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아침에 조심스럽게 이를 닦는데 소금을 청정제(淸淨劑)로 사용하고 칫솔대신 손가락 위에 소금을 놓고 치아에 비벼댄다. (중략) 하루는 어떤 사람이 치아가 몹시 아프다고 불평을 하면서 찾아왔다. 그 사람을 빨리 돌려보내기 위해 아픈 치아를 뽑아 버리자고 권하였다. 그렇게 권하면 환자들은 곧 가버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놀랍게도 당장에 동의하는 것이었다. 나의 처방을 수행하기 위해 나는 능력을 다해 한 번에 치아 2개를 뽑아 버렸다. 그날 늦게 내가 병원 문을 닫기 전에 그 사람이 온 것을 보고 나는 기가 꺾이고 말았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치아 1개를 썩은 치아와 같이 뽑아 버렸기 때문에 호된 욕을 먹을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의 처(妻)의 치아 몇 개를 뽑아 달라고 처를 데리고 온 것이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때까지 한국사람으로 그렇게 아프지 않게 한꺼번에 치아를 2개씩이나 뽑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 나는 많은 이를 뽑게 되어 오히려 이 뽑는 일이 점점 좋아지게 되었다.”

알렌의 발치는 환자에게는 신기한 의술이 되었다. 이는 발치를 위한 발치 겸자로 마취 후에 시술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이 기구는 현재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남아 있다. 이후 알렌은 1885년 4월부터 1886년 4월까지, 만 1년간의 보고서에 약 200예의 수술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치료는 알렌에게는 중국에서는 300년이 걸린 선교를 단번에 이룰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조선에서의 서양 치의학은 치과의사가 아닌 의사에 의해 시작된 것이었고 발치는 신기한 의술이 되었다. 치과 진료를 기록으로 남긴 서양인 의사들의 입국과 활동 상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미국인 의사의 입국과 활동 상황

| 성명    | 입국년월일      | 입국 사항 | 치료내용 | 비고      |
|-------|------------|-------|------|---------|
| 알 렌   | 1884.9.20  | 선 교   | 구강외과 | 제중원 설립  |
| 스크랜튼  | 1884.5.3   | 선 교   | 구강외과 | 시병원 설립  |
| 헤 론   | 1885.6.20  | 선 교   | 구강외과 | 제중원 근무  |
| 로세타 홀 | 1890.10.13 | 선 교   | 구강외과 | 동대문부인병원 |

치과의사들도 입국하게 되었다. 이때에 활동한 치과 의사는 1897년에 입국한 라빈슨(Robinson)이 처음이었다. 라빈슨은 중국 상해에 주재하며 출장 왔던 것이다. 이는 의료 선교사들에 의한 치과 치료가 행해진 후 13년 만에 미국인 치과의사가 조선에 입국한 것이다. 대한제국이 선포된 후 독립과 자강이라는 기본 입장의 의학 분야에도 나타난 때였다. 위생국의 설치, 종두법, 환경개선과 방역 사업 그리고 의료기관의 설립과 의료 인력의 양성이 그것이다.

절대권자인 고종의 황제의 보철 치료는 일반인들에게 보철 치료의 확대할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은 고종 황제의 구강상태와 보철 치료에 관한 기록이다. 황제는 구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였다. 황제는 당분에 의하여 손상된 치아를 가지고 있었다.

1902년 11월 8일 (전략) 황태자는 어색한 태도로 나에게 몸을 돌려 입을 짝 벌이더니 호박구슬(옛)을 입속에서 이리저리 굴렸다. 황제도 역시 입에 호박구슬을 넣고 굴려댔다. 황제와 황태자의 치아가 시커멓게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 황태자의 치석을 치료하는 게 어렵냐고 제안했다.

황제는 또한 식물 색소의 침착으로 색이 변해 있는 치아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불량한 황제의 치아는 조개를 드시다가 부러질 수밖에 없었다. 이 부러진 치아를 치과의사 소어스(James Souers)가 치료하였다.

황제폐하께서 조개를 드시다가 돌을 씹으셔서 흔들리던 치아가 부러졌다. 치아는 제거되고 새로운 치아

를 소어스 치과의사가 제작하였다. 그는 다행히도 그 때에 서울에 있었다. 소어스는 미국 치과의사로 동경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직업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곤 하였다. 그는 한국인의 저작 기능을 향상 시키는 보람된 시간을 보내곤 하였다. 간혹 불만족인 경우도 있으나 황제를 포함한 대다수가 바람직한 태도로 치료를 받았다. 황제는 소어스 치과의사의 치료에 만족해서 1000엔을 지불하기도 하였다.

또한 황제의 주치의 분쉬의 1903년 11월 8일자 일기에도 같은 치료의 기록이 있다.

“바로 일주일 전, 그러니까 일요일 밤에 황제의 앞니가 하나 빠져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는 케겔 씨 송별연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궁으로 불려갔다. 새벽 2시에 내가 궁궐 앞에 다다랐을 때 손탁 여사 댁으로부터 편지를 한 통 전해 받았다. 바로 그 소식이었다.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국인 치과의사에게 전보를 보냈고 화요일에야 그가 황제를 진료할 수가 있었다. 그 의사는 사기질 치아를 만들어 금침쇠로 붙였는데, 나는 금침쇠를 만드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다. 치과의사는 황제의 입안에 씻지도 않은 손을 휘저으면서 ‘폐하’ 혹은 ‘황제 폐하’라고 말을 붙였다. 다 만들어진 두 개의 이빨 가운데 하나가 꼭 맞았다. 이빨을 끼워 맞추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황제는 놀라울 정도로 명칭해 보였다. 황제는 일본 천황도 미국인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는 소리를 듣고는 그 의사에게 1,000엔을 지불했다. 그리고 나에게 독일에서 치과의사를 데려오라고 제안해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때 미국인 치과의사 소어스에 의하여 초보적인 보철 시술이 행하여 졌다. 그때는 비록 황제라 할지라도 비위생 상태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시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전통 치료법에서 발치 후 보철 치료를 했다는 기록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절대권자인 황제의 보철은 일반인의 의식의 전환을 일으키어 보철 치료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이렇게 이 빠진 데에는 이를 해 낼 수 있다는 의식의 전환도 생기게 되었다.

이때에 출장 온 미국인 치과의사들은 신문에 광고를 내어 환자를 치료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치료한 환자들은 신문을 볼 수 있었던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환자의 대부분이 상류층이었을 것이므로 치료비를 비싸게 책정되었을 것이다. 고종 황제의 보철 치료에 1000엔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지불된 것은 이러한 사실은 말해주는 것이다. 다음은 미국인 치과의사의 입국과 활동 상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미국인 치과의사의 활동

| 성명   | 진료시기        | 의료활동     | 주진료지 | 비고           |
|------|-------------|----------|------|--------------|
| 라빈슨  | 1897.1.9.   |          | 상해   | 최초의 미국 치과의사  |
| 슬레이드 | 1898.10.18. | 의치       | 神戸   | 1905년까지 출장진료 |
| 소어스  | 1903.11.8.  |          | 神戸   | 고종황제의 의치제작   |
| 니이   | 1904.9.6.   |          | 横濱   |              |
| 한    | 1906.1.7.   | 무통발치, 보철 | 서울   | 치과의학교 설립계획   |

그 후 1906년 1월에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주재하는 치과의사가 생길 수 있었다. 그가 한대위(韓大衛, David Edward Hahn, 1874-1923)이다. 그는 선교하는 치과의사이며 구강외과의사였다. 그는 스크랜튼 병원 옆에서 치과진료소를 개설하며 그는 평양과 운산 금광까지 가서 진료했다. 치통치료, 무통발치, 충치 및 치단 치료, 금치, 호막치, 세자치, 금브래잇, 호막브래잇 등이 치료의 내용으로 보인다. 이 광범위한 치료의 내용으로 보아 점차 보철 치료가 일반화되고 있었다. 치료한 내용은 그 당시에는 최고급 치료였으나 치료비가 비싸다고 말을 듣기도 하였다.

한대위는 치과의학교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세브란스병원의학교가 1909년 7월 조선정부로부터 인가된 직후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 통감부의 조선 식민지 보건의료정책에 의해 조선인을 위한 한대위

의 치과의학교 설립안은 무산되고 말았다. 일본은 조선인 치과의사를 양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증원의 의학교육에 이어 치의학 교육에 있어서까지 미국에게 기선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자신에게도 일부분이나마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었다.

서울은 주재하는 치과의사 한(Hahn)이 오히려 축하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몇 가지 질이 안 좋은 소문이 떠도는데 그것은 치료비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이것은 진실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는 거리가 멀게 개인적인 관찰로 알려진 것이다. 주재하는 치과의사로서 출장온 치과의사보다 더 싼 요금을 받았다. 우리는 이러한 부인하는 일이 최대로 알려져 받아드려지기를 바란다. 한은 치과의학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려고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 책의 다음 출판

에는 이 일에 재미있고 가치 있는 구체적인 것이 대중에게 알려지기를 기대한다.

서양 치과의학은 치통으로 고생하는 조선인에게 발치 감자와 국소마취제를 사용하여 치료함으로써 통증을 제거하였으며, 특히 무통 발치는 서양의학에 신뢰감을 더하게 하였다. 의치를 보고 놀란 조선인들에게 꿈에서나 '이 빠진데 박씨 박기'를 원했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출장으로 조선에 온 미국인 치과의사에 의한 고종 황제의 보철 치료는 보철 치료를 확대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황제를 비롯한 천민까지 모든 계층을 진료함으로써 자유·평등·박애의 기독교 사상을 전파하고, 그에 의한 사회적 변화까지 이루어 갔다.

#### 나. 일본을 통한 치의학의 도입

일본인 의사도 입국하였다. 일본인 의사는 침략의 앞잡이로 재조선 일본인과 일본군의 치료를 위해 입국하였다. 일본은 조선 지배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상태에서 일본의 의료체계가 조선에 도입되었다. 수준 높은 의료는 지배층인 일본인을 위한 것이었으며, 일부 조선인에게 제공된 의료는 시혜의 성격이 강했으며, 경찰과 헌병을 앞세운 방역 활동은 일반인의 일상을 감시와 탄압의 성격이 강했다. 이러한 일본의 의료체제로 조선인의 자주적인 근대 의료 활동이 좌절되고 일본의 치과의학의 수준 이하로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제생병원은 1877년 2월 11일 설립된 서양의학을 시술하는 최초의 병원이다. 이는 재조선 일본인을 위해 설립한 것이지만, 진료는 조선인에게도 개방되었다. 이때는 의학과 치의학의 뚜렷한 구분이 없었으며, 외과의 한 부분으로 치과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1883년 4월에 육군 군의 고이케(小池正直)가 제생의원 원장으로 부임하였고, 그는 『계림의사(鷄林醫事)』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 책에 의하면 “2년간에 1,665명의 환자 중 우치(齲齒)환자가 2명 정도로 조선사람들은 충치가 없다”고 하였다.

일본인이 처음으로 치과의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1893년 6월경 인천에 치과의사 노다 오요지(野田應治, 1871-1930)가 처음으로 개업하였다. 그는 인천에서 서울로 개업 장소를 옮겼으나 투석(投石)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다시 일본인 거주지인 진고개(泥岬)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그가 개업한 시기가 일제가 조선 내정에 적극 개입하여 갑오왜란을 일으켜 김홍집 내각을 세우고, 친일 개화정책을 수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노다 오요지는 진료소 입구에 보철물과 치과 치료와 관련한 그림을 전시하여 환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에 '이해박는집'이라는 간판에는 총의치(總義齒)의 그림을 그려 넣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다 오요지의 보철 치료는 일반화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일본인 치과의사의 입국과 활동 상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일본인 치과의사의 활동

| 성명    | 입국연월일     | 개업연월일     | 활동사항    | 비고             |
|-------|-----------|-----------|---------|----------------|
| 野田應治  | 1887      | 1893.6.30 | 발치, 의치  | 자비중군 최초 개업치과의사 |
| 深江尙弟  | 1897      | 1897      |         | 부산에서 개업        |
| 重城養二  | 1904      | 1904      |         | 최초의 병원치과의사     |
| 飯塚徹   | 1905      | 1907.2    | 순종진료    | 重城養二후임         |
| 檜崎東陽  | 1905.9.10 | 1906.6    | 伊藤博文架工齒 | 조선주차군 동인의원     |
| 注連内堅石 | 1906.6    | 1909      |         | 조선주차군 동인의원     |
| 中村安子  | 1909      | 1909      |         | 여자치과의사         |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입국할 시기에는 이미 많은 수의 입치업자(入齒業者)도 함께 입국해 있었다. 이들은 학문적인 연마 없이 간단한 기공만을 배워 영리를 목적으로 입치업을 해서 치과진료를 격하시키며, 또한 상행위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을 초래하게도 하였다. 이 시기 발치(拔齒)는 일반화되어 ‘푸로카인 쇼크’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 3부 치과의사회의 설립과 활동

#### 가. 경성부치과의사회(1912년 1월 16일)

#### 나. 조선치과의사회(1921년 10월 2일)

치과의사들이 단체를 조직한 것은 친목과 권익 때문이었다. 1912년 1월 16일 서울에 경성치과의사회를 처음 설립하였다. 전국적인 규모의 치과의사회가 필요하게 되자 경성치과의사회의 초대 회장이었던 나라자끼 도오요오(檜崎東陽)가 창립위원장이었고 경성치과의사회의 임원인 도내가와 세이지로오(利根川清治郎)·오오자와 기세이(大澤義誠)·미쓰다 소오(滿田操) 등이 위원이 되어 조선치과의사회를 설립하였다.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는 조선에 있는 일본인 치과의사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조선치과의사회의 창립총회는 장곡천정 은행집회소(현재 소공동 조선호텔 앞)에서 개최하였다.

조선치과의사회의 설립 배경은 행정적인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치과의업에서 치과의사들은 입치사와 구별이 없었다. 그 무렵 입치사들이 진료와 광고의 한계를 넘어 치과의사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정도가 심하였다. 그러므로 치과의사들이 단결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경성치과의사회의 대표로서 나라자끼 도오요오(檜崎東陽)와 도내가와 세이지로오(利根川清治郎)가

입치사의 단속, 제도의 폐지를 목표로 이사청에 있는 미우라 지고로오(三浦彌五郎) 이사관에게 이러한 문제를 자주 언급했으나 전국적인 대표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또한 조선치과의사회의 설립 배경에는 치과의사회를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인식시키려는 목적도 있었다. 당시 행정당국의 행사시에 의사회는 초청 받으나, 치과의사회는 초청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부단한 노력의 결과 조선총독부 산하기관에서 의사회를 참석시키는 경우 치과의사회도 함께 참가하게 했다. 이 후 경성치과의사회, 한국인만의 한성치과의사회, 조선연합치과의사회는 일반 의사회와 동등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

설립 당시 회원은 22명 정도로 추정된다. 창립기념 사진에는 내빈인 총독부 위생과장 무라타 쇼케이(村田昇清) 외에 22명의 얼굴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당시 총독부의 방침은 조선치과의사회를 지방 단체를 규합해서 만들도록 권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 부산, 평양에만 치과의사회가 있을 뿐이었다. 지방의 치과의사회를 설립한 후 전국적인 단체를 조직하기는 시간적으로 어려우므로 우선 중앙에 만들어 놓고 각 지방에서 회원을 개인별로 참석시키기로 한 것이었다.

총회 경비는 재료상인 일본의 고바야시 토미타로오(小林富太郎) 서울의 사카이 코오이찌(酒井好一)과 노무라 미쓰마사(野村光政)으로부터 380원의 기부금을 받아 사용하였다.

이 조선치과의사회는 일본인 치과의사가 주동한 일본인 치과의사를 위한 조직이었다. 조선치과의사회의 조직은 회장, 부회장, 이사, 평의원, 지방위원 제도가 있었는데, 회장을 비롯한 거의 모든 임원을 일본인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회장은 나라자끼 도오요오(檜崎東陽)·이이다 테쓰(飯塚徹)·도내가와 세이지로오(利根川清治郎)·소토 케이쥬(外圭三)·오오자와 기세이(大澤義誠)·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가 역임하였

다. 한국인 치과의사들은 조선치과의사회에 가입했으나 소외되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한국인 치과의사 임원으로 설립 후 10년이 지난 1930년 김연권(金然權)이 이사로, 이성모(李成模)가 평의원이 된 기록이 처음 보이는 실정이었다.

조선치과의사회는 설립 이후 조선치과의학회와 밀접하게 활동하였다. 조선치과의학회는 조선치과의사회보다 먼저 1919년 10월에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조선에 온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조선의학회의 의사들과 함께 학술과 권익과 친목을 도모하다 치과의사만의 학회를 갖게 된 것이었다. 조선치과의사회는 조선치과의학회가 개최된 다음 날에 열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또한 총회 후 조선치과의학회와 같이 연합 간담회를 자주 가졌다.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임상 강연을 듣기 위하여 조선치과의학회에 참석하였다. 때문에 조선치과의학회와 밀접하게 활동한 조선치과의사회에도 관심을 가져 조선치과의학회 회원 중에 일부가 조선치과의사회의 임원이 되어 총회에 참석했으리라 짐작한다.

조선치과의사회라는 똑 같은 명칭을 가진 단체가 별도로 조직된 일이 있었다. 이는 동인회(同仁會)라 부르던 단체가 조선치과의사회라 개칭하였기 때문이다. 동인회라 부르던 단체는 1930년 가을 치과의사시험제도에 의하여 치과의사 자격을 획득한 서울에 있는 치과의사 13명이 조직한 단체였다. 그 단체가 회원을 확장하여 1933년 서울에 40여명, 전국에 300여명이 되자 조선치과의사회라 개칭하였다.

#### 다. 한성치과의사회

한성치과의사회(漢城齒科醫師會)는 1925년 한국인만으로 조직된 치과의사회였다. 설립 배경은 한국인만의 치과의사회의 필요성을 공감하였기 때문이었다. 1914년 6월 개원한 이래 함석태는 일본인 치과의사들

과 함께 자연스럽게 치과의사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는 일본인 치과의사와 교류하면서 생계수단으로서의 치과의사라는 직업의 어려움과 한국인들의 위생관념부족을 절실하게 느꼈다. 때문에 함석태는 한국인 최초의 치과의사로서 당당하게 치의학에 대한 사회에 인식을 환기시키는 것과 후진의 앞길을 열어주는 일에도 책임을 느꼈다. 그는 한국인 치과의사로서의 사회에 봉사가 되는 것이라면 어떠한 노력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또한 함석태의 성향에는 나라와 동포를 사랑한 면도 있었다.

경성치과의학교 제1회 졸업생의 경우 배움의 길에서 한국인만의 치과의사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다. 1922년 4월 1일 개교한 경성치과의학교에서는 한국인 치과 학생들은 배움에 열중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한국인의 교육 환경은 일본인들과 같을 수는 없었다. 당시의 학생들은 “허다한 국난과 불가피하게 봉착하는 애로를 극복하여야만 하는 학창생활 가운데 학문의 탐구에 전력하는 동시에 적들에 대한 유형무형의 항쟁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듯 역경과 싸우면서 수업하였다.”고 한 것에서 “국난, 애로, 극복, 적들에 대한 유형무형의 항쟁, 역경과 싸우면서” 라는 글귀와 같이 한국인만의 치과의사회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한성치과의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들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라 생각할 때, 일본에서 공부한 조동흠이나 총독부의원 치과에서 조수로 근무하던 김연권의 경우에도 공감하여 함께 참여했을 것이다.

한성치과의사회는 경성치과의학교 제1회로 졸업한 젊은 치과의사들의 제안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회원은 7명으로 회장에는 한국 최초의 치과의사인 함석태가 추대되었고, 총무에는 경성치과의학교 제1회로 졸업한 안중서를 선임하였다. 회원 김용진·최영식·박준영은 경성치과의학교 제1회 졸업생이었고, 조동흠은 1925년 오오사까(大板)치과의학전문학교 졸업생이었고

고, 김연권은 1923년 5월 16일 치과의사시험에서 합격하였다.

한성치과의사회 회원은 매년 증가되었다. 1926년에는 문기옥(文箕玉)·박준대(朴準大)·이수만(李壽萬)이 입회하였고, 1927년에는 신헌식(申獻植)·신응현(申應鉉)이 참가하였다. 1928년에는 박명진(朴明鎭)·장지원(張志遠)·김종찬(金鐘贊)·남수희(南壽熙)·신인철(申仁澈)·이유경(李有慶)·김용봉(金溶奉)·이천흥(李天興)이 가입하여 회원이 20명이 되었다. 또한 1933년 말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으로 이동환(李東奐)·정보라(鄭保羅)·김중환(金鐘煥)·조경호(趙敬鎬) 등의 이름이 보이는데 이들은 1928년 이후에 입회한 회원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1936년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 정보라 이외에 안병식(安炳植)·한도수(韓道洙)·이수만(李壽萬)·김철용(金喆庸) 등도 1928년 이후에 가입된 회원일 것이다.

1928년도부터는 각 부서를 결정하여 회의 체계를 확립시켰다. 설립 시에는 회장과 총무뿐이었으나 1933년 12월 31일 총회에서는 부회장이 추가되었고 이사와 평의원제를 채택한 것은 회의 체계를 확립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1933년 12월 31일 총회에서는 임원이 개선되었다. 회장에는 함석태가 유임되었고, 부회장에 조동흡이 선임되었다. 이사에는 이동환·이유경·최영식·평의원에 박명진·정보라·김중환·남수희·조경호가 선출되었다. 1936년 총회에서는 회장 함석태, 부회장 조동흡이 유임되었고, 이사에는 정보라·최영식·남수희, 평의원에 박명진·안병식·한도수·이수만·김철용을 선출하였다. 이 평의원제를 채택한다는 사실은 많은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평의원을 선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1939년의 경성치과용품조합 조합기 입훈식에 박명진이 한성치과의사회 회장으로 참석한 것을 보면 이전에 회장이 경질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41년 초 한성치과의사회 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조동흡이 선

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설립 시 한성치과의사회는 친목기관으로 매주 만날 수 있었다. 한성치과의사회에서는 임상적 토론으로 실패담 또는 성공담 등을 토하여 상호 지식을 교환하는 정도이었으나 회원이 증가되고 회의 체계가 확립되자 회(會)의 목적이 친목 이외에 학술연구, 구강위생계몽, 회원복리로 발전하게 되었다.

### (3) 조선연합치과의사회

조선치과의사회는 조선연합치과의사회(朝鮮聯合齒科醫師會)로 전환시키기로 하였다. 1930년 10월 조선치과의사회 총회에서 치과의사회의 연합에 대하여 연구하기로 의결하였다. 이것은 앞서 1930년 6월 4일 '충치예방의 날' 행사에서 각 치과의사회와 개인들이 참석하여 연합체로서 큰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연합치과의사회로 개편되는 또 다른 이유는 1930년 10월 조선치과의학회 총회에서 불편한 관계가 노출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1932년 10월 30일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는 경성의학전문학교를 배경으로 경성치과의학회(京城齒科醫學會)를 설립하게 되었다. 그 결과 조선치과의학회가 분리되어 경성치과의학회와 양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학회의 분립 상황 때문에 치과의사들의 단결이 더욱 요구되는 실정이었다.

1932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는 총회에서 지방조직을 확대하기로 결의하였다. 조선치과의사회는 각 지방 치과의사회를 조직하여 연합체인 조선연합치과의사회를 만들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국에 12개 치과의사회가 참여했으나 무리하게 조직하여 참여시킨 결과 치과의사회가 9개로 감소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노력으로 1935년 총회에서는 20개 치과의사회가 참여하게 되었고, 1938년에는 25개의 가맹단체가, 1940년 3월 31일 총회에서는 27개 치과의사회가 가맹하게 되었다.

조선연합치과의사회의 성격은 공법인(公法人)으로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위생행정사무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성격이 노출된 것은 다음과 같은 사건 때문이다. 조선치과의사회가 조선연합치과의사회로 이름을 바꾸자, 조선치과의사회로 개명하는 단체가 있었다. 동인회(同仁會)라 부르던 단체가 1933년 조선치과의사회라 개칭하였기 때문이었다.

조선치과의사회라 부르는 단체가 다시 생기게 되자, 조선연합치과의사회와 새로운 조선치과의사회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조선연합치과의사회 회장이던 도내가와 세이지로오(利根川清治郎)는 “조선에서의 치과의사회는 일본의 의사회에 준거(準據)하여 운영되어 왔음을 전제하였다. 그러므로 의사회란 공법인으로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위생행정사무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조선에서는 조선연합치과의사회가 있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치과의사회를 옥상가옥(屋上假屋)처럼 만들어 통제를 어렵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주장했다. 그 후 이 조선치과의사회는 1938년 4월 17일 임시 총회에서 조치회(朝齒會)라고 개칭하게 되었다.

조선연합치과의사회는 중일전쟁을 전후해서 전시체제에 따르게 되었다. 1937년에는 비상시국(非常時局)이라고 하여 조선치과의학회 및 경성치과의학회의 총회가 중지되었다. 따라서 조선치과의학회와 밀접하게 활동하였던 조선연합치과의사회 총회도 열리지 않았다. 다만 1937년 8월 28일 조선연합치과의사회장이 각 지역 치과의사회장 앞으로 보낸 공문(公文)에서 군인가족의 진료와 회원 출정자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을 뿐이었다.

조선연합치과의사회는 군사후원연맹이 조직됨에 따라 조선군사후원연맹에 가맹하게 되었고, 치과의사들이 중일전쟁에 참전하기도 하였다. 1938년 9월 21일 전시체제에 대비한 국민총동원법에 의한 조선에서의 의료관계자 직업능력신고령시행규칙에 의한 신고를 하게 했다. 1939년 9월 1일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

어나자 1939년 10월 1일에는 국민징용제도가 되고, 1940년 2월 21일에 육군이, 1941 5월 28일에 해군이 치과군의관제를 실시했다.

1939년 4월 30일 제17회 조선연합치과의사회의 총회는 출정황군위문 치과진료반 파견에 관한 건을 논의했고, 1939년 6월 29일 경성부 치과의사회 임시총회에서는 황군위문 치과진료반을 파견함에 따라 9월 2일 장병위문 치과진료반이 중국 북쪽으로 떠났다. 산서의 향토부대를 비롯하여 각 부대에서 치과진료일수 45일, 환자 연인원 5천 9백 11명을 치료했으며, 발치 1만 2천여 개를 하여 각 부대장의 감사장을 받고 11월 15일 귀환했다.

조선연합치과의사회에 한국인 치과의사들이 참석했으나 소외되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1932년과 1933년 조선치과의사회 총회에 평양치과의사회의 대의원으로 한동찬(韓東燦)이 참석하였다. 한동찬이 대의원으로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평양치과의사회 회장이기 때문이었다. 평양치과의사회는 그 구성비에서 1926년 이후에는 한국인 치과의사가 일본인 치과의사보다 항상 많은 편이었다.(부록 10. 연도별 지역별 치과의사수 참조) 1928년 이전에는 한국인 치과의사와 일본인 치과의사가 별도로 단체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법정치과의사회가 곧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함께 단체를 구성하고, 회장 등 임원을 교대로 하기로 했었다.

1935년 9월 25일 한국인만의 치과의사회인 한성치과의사회가 조선연합치과의사회에 가맹하였다. 가입 동기는 종전에 개인적으로 입회하던 제도를 바꾸어 각지방 치과의사회의 연합체인 조선연합치과의사회가 됨에 따라 지방치과의사회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 계획에 따라 함흥, 목포, 신의주, 전주, 광주, 평남, 수원, 개성, 한국인만의 한성치과의사회도 가입하게 되었다. 한성치과의사회 등을 가입시켜 20개의 가맹회를 가지게 되자 조선연합치과의사회로서는 창립 15주년을 맞이해 축하식을 가지기도 하였다.

한국인만으로 구성된 한성치과의사회의 조선연합 치과의사회에 가맹하는 것은 수개월 전부터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었고 화제의 대상이 되었다. 조선연합치과의사회에서는 한성치과의사회가 가입할 예정이라는 것을 미리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인만으로 구성된 한성치과의사회가 조선연합 치과의사회에 가맹한 이유는 1928년 과거 평양에서와 같이 법정치과의사회가 곧 생길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한성치과의사회가 조선연합치과의사회에 가맹했으리라고 추정된다. 이때까지의 치과의사의 단체는 임의 단체였으나 법정치과의사회는 치과의사 모두를 치과의사회에 강제 입회하게 하자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것은 법정치과의사회의 건으로 정착되었고, 법정치과의사회는 조선연합치과의사회의 숙원사업의 하나가 되었다.

이후 한성치과의사회는 한국인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과의사회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35년 6월 경성치과의사회의 간친회, 1936년의 충치예방의 날, 경성부치과의사회 25주년행사, 1937년 원단의 광고, 1937년의 충치예방의 날, 1937년 군사후원연맹가맹, 1939년의 경성치과용품조합 조합기 입혼식, 1941년의 치아와 건강전람회, 조선치과용품상조합이 상업조합령으로 발족할 때에 한성치과의사회는 경성치과의사회와 그 위치를 동등한 수준으로 참석하고 있었다.

이후 한국인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과의사회로서 한성치과의사회 함석태와 조동흠은, 평양치과의사회의 한동찬과 같이, 조선연합치과의사회의 평의원이 되기도 하였다. 1939년에 이르러 박명진(朴明鎭)·박부영(朴扶榮)이 평의원이 되었다. 1940년에 최병지(崔丙智)·이창용(李昌鎔)·김찬규(金讚圭)·김성도(金性度)·김상문(金尙文)이 박명진·박부영과 같이 지방을 대표하는 평의원이 되었다.

### 마. 도별 치과의사회

‘시국 정세(時局 政勢)’는 치과의사회가 변화하는데 한 요인이 되었다. 1940년 3월 31일 조선연합치과의사회 총회에서는 도별 치과의사회 설립을 가결하였다. 도별 치과의사회 설립은 전국의 치과의사를 단결시킨다는 취지였다. 도별 치과의사회 설립 시에는 각 도의 위생과와 협의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관권이 개입하는 것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성이 포함됨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다. 도별 치과의사회 설립은 장차 법정치과의사회 설립의 전제로서 단체의 통제 및 자체배급, 업권의 옹호와 발전이 목표였다.

이에 1940년 5월 12일 함경남도치과의사회가 설립되고, 약 5개월 후인 11월 23일까지 강원도치과의사회가 마지막으로 도별 치과의사회를 결성을 마무리했다. ‘시국 정세’로 인해 모든 치과의사들이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1940년 각 도별 회원수는 정회원 1,019명, 준회원(입치사) 188명으로 총계 1,207명이었다. 심지어 준회원으로 입치사까지 가입시켜 관리하게 했다.

1941년 3월 23일 조선연합치과의사회의 가맹회장 회의에서 조선연합치과의사회를 개조(改組)하여 종래의 각 지방 치과의사회는 도 산하로 들어가고, 그 후 각 지방 치과의사회는 자연히 소멸되도록 결정했다. 또한 1941년 5월 25일 조선연합치과의사회 총회는 ‘시대에 따라’ 합리적으로 회를 개조하며, 회 명칭도 조선치과의사회라고 다시 부르게 하였다.

도별 치과의사회 설립 이후 치과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1941년 12월 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일 선전포고하던 시기에 치과의사들은 심한 통제 속에서 지내게 되었다. 1941년 조선총독부에서는 긴박한 시국에 대응하고자 일본에서 후생성이 생겼을 때 후생국을 신설했다. 지금까지의 위생과는 경무국에서 경찰에 의해 통제되다가 기구개혁으로 후생

국에 두게 되었다. 1942년 2월 조선후생협회가 발족했다. 명예회장에는 정무총감, 회장은 후생국장이 맡았고, 임원은 모든 의료 관계 인사를 망라하는 속에 치의학계도 참여하게 되었다.

도별 치과의사회 설립 이후 치과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은 법의 집행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일제는 1942년 2월 24일 의사 및 치과의사령을 발표했다. 이 법은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보건지도 및 국민체력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래서 의사 및 치과의사는 국민의료와 보건지도를 맡고 국민체력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그 본분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각 치과의사회는 국민의료 및 보건지도의 개량발달을 도모하고 국민체력향상에 관한 국책에 협력하는 것을 규정하였다. 1942년 8월 22일 이와 함께 국민의료법, 건강보험법, 국민보험법, 전신재해보호법, 의료관계자징용령과 의료관계자징용부조규칙을 정비하였다. 이에 상응하는 법률이 한국에도 시행될 것이라 하였으나 이러한 법에서 규정하는 권리는 제외하고 의무만 시행된 것이 식민지의 실정이었다.

1941년 조선치과의사회는 부회장을 1명 보강하여 조동흡이 선임되었으나 사망하고, 1943년 조선치과의사회 총회에서 부회장에 함석태가 보선되었다

도별 치과의사회를 법정치과의사회로 변화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1932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 총회에서 치과의사를 치과의사회에 강제입회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부산치과의사회 후지이 지사부로우(藤井彌三郎)의 문서가 발단이 되었다.

부산치과의사회 부회장 후지이 지사부로우(藤井彌三郎)는 1932년 10월 1일과 11월 15일 치과진료수탁에 관한 건(치과진료촉탁양식서, 치과진료수탁양식서, 치과진료촉탁권양식서)이란 문서를 부산에서 은행과 회사 등에 발송하였다. 이는 치과의사법의 과대광고에 해당되며 이 외에 위칭과 보수규정을 위반하여 회를

모독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에 12월 11일 부산치과의사회는 임시총회에서 제재처분실행위원회 조직을 결의하였다. 그러자 12월 12일 후지이 지사부로우(藤井彌三郎)는 부산치과의사회의 부회장 사임과 탈회를 신문에 광고하므로 문제가 발생하였다.

부산치과의사회 회장 쿠마노 타내후유(熊野種冬)는 서울에 와서 분규를 해결하려 했다. 후지이 지사부로우(藤井彌三郎)는 ‘유감으로 생각하며 치과의사법 위반이 아니며 사회에 다소라도 자진하여 공헌하려 했다’는 주장이었다. 이를 본 조선연합치과의사회 회장 도내가와 세이지로오(利根川清治郎)는 치과의사회 통제상의 중대 문제로 여겼다. 사건은 관(官)의 개입으로 후지이 지사부로우(藤井彌三郎)의 각성을 가져오게 하여, 다음 해인 1933년 10월 11일 부산치과의사회 임시 총회에서 해결되었다.

이러한 치과의사를 치과의사회에 강제 입회시키려는 법정치과의사회에 관한 안건은 1933년, 1934년, 1935년, 1939년에 대구, 부산, 평양, 함북, 군산치과의사회에서 차례로 상정시켰다. 1941년 5월 25일 제19회 총회는 치과의사회령 발표 촉진에 관한 건과 1942년 5월 24일 제20회 정기총회는 치과의사회령 발표에 관한 건이 통과되었다. 이 법정치과의사회 문제는 총독부 위생과장 니시가메 산케이(西龜三圭)도 행정관으로 상당한 개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식민지에서의 치과의사회령 발표는 근본적으로 그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성은 지도층에 있었던 일본인 치과의사의 대화에서 엿볼 수 있다.

生田信保: 일본과 같이 통일되면 어떻게 되는가?

大澤義誠: 아직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일본의 법규와 동일하게 되려면 참정권을 조선에 인정하여 조선에서 대의원을 선출하고, 총독부가 없어지고, 일본 내 무성에 직할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外三; 그렇다. 그리되면 일본 치과의사회와 통일하기 쉽게 된다. 그것은 제도상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大澤義誠; 樺太와 동격이 된다.

河內一宗; 그것은 민족의 경우라든가 그밖에 문제가 있으니까

利根川清治郎; 나는 조선에 있어서는 일본과 똑같이 하지 않아도 좁은 범위의 법역으로 조선에서 합리적으로 한다면 일본의 정신을 헤아려서 개량 발달시킬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이를 진행중이다. 굳이 일본과 같이 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것은 없다. 조선의 독자적 입장에서 진보시키면 그만이라 생각한다.

한국에서 법정치과의사회를 설립하려 할 때 일본인 치과의사들의 시각은 총독부의 관리에서 벗어나 내무성 직할로 관리되도록 제도를 개혁하여야 한다. 내무성 직할로 될 때 한국인에게 참정권과 대의원 선출권을 줄 수 없는 등 복잡한 문제가 연루된다. 그러므로 좁은 범위의 법의 해석으로 일본의 정신에 입각해 한국에서 합리적으로 개량 발달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한국에서는 도별 치과의사회를 통하여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